



‘엔데믹’ 공연 수요 급증 기승 부리는 ‘암표상’

코로나19 엔데믹을 맞아 각종 공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존 티켓 값에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암표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적게는 1만원부터 해외 유명가수 공연의 경우 수백만원까지 뛰어 파는 행위가 횡행하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온라인 암표 신고 건수는 2020년 359건에서 2021년 785건, 지난해 4천224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 사이 1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아 열리는 해외 유명 가수의 내한 공연 암표 값은 10배 이상 뛰기도 했다.

오는 17-18일 예정된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내한 공연의 티켓값은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티켓팅 직후 해당 공연 8원석 티켓을 1억8천만원에 제시하는 암표상까지 등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IS)에 따르면 올해 공연(지난 14일 기준)은 전국적으로 총 7천145편이 개막했다. 이는 전년 동기(6천802개) 대비 23% 늘어난 수치다. 방역 규제 완화에 이어 지난해 엔데믹까지 선언되면서 공연 공급과 수요 모두 늘어나는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온라인 앱에서도 암표 판매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날 지역 생활커뮤니티-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서 북구 일곡동을 위치지정 후 ‘씨아 흠뻑쇼’를 검색하니 ‘여수 SR석 연석 판매’, ‘나구역 5XX년대 판매’ 등 10개가 넘는 게시물이

이처럼 공연 공급은 증가세가 뚜렷하지만 ‘암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복 작업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한 암표상을 처벌할 수 있는 공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시행은 내년 3월부터다. 이마저도 매크로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 경우 처벌하지 못한다는 하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연에만 한정돼 스포츠-팬미팅 행사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다.

출출했다. 광주 인근에서 개최되는 여수 공연을 제외하고도 수원-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행사 티켓 판매 게시물도 눈에 띄었다. 이들이 판매-양도하는 티켓 값은 기존 공식 판매처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적게는 1-2만원, 로열석에 연속된 자리일 경우 10만원 이상 비쌌다. ‘흠뻑쇼’는 매 공연마다 완판 행진을 이어가는 가수 사이의 여름철 대표 콘서트다. 지난 7일에 매시작과 동시예매가 이용자 폭주로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며 인기 좌석의 경우 순식간에 매진됐다.

이때 따라 K-POP 위상과 올바른 공연 문화 확립을 위해서라도 암표 척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실제 최근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가 암표-부정거래 대책을 위해 공연 기획사 42개사와 함께 공연 티켓 수요자 2천8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83.9%(2천351명)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중현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장은 “암표로 인한 부정거래는 공연산업 전반에 피해를 주며 해외 팬들에게 K팝 공연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암표-부정거래 근절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이제 온라인 신고 최근 3년 새 12배 가까이 급증 ‘씨아 흠뻑쇼’ 웃돈 판매 게시물 속속 등장 설문-응답자 84% “강력한 처벌 필요” 지적

Today	
김경수의 광주땅 ‘최초’ 이야기	5면
‘경찰 기강 해이’ 대책 세워라	6면
키워드로 보는 ‘명화’ 이야기	14면

수도권 대학병원, 지방의사 흡수 ‘블랙홀’

대학병원들, 향후 5년내 수도권 분원 11개 건립
전문가들 “수도권 병상 증대 ‘원정 진료’ 심화”
김원이 “전남권 의대·부속병원 함께 설립” 촉구

서울대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들이 향후 5년 이내 수도권 분원 총 11개를 건립할 계획인 가운데 지방 의료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에 대학병원을 설립,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인천·경기도에 건립을 추진 중인 대학병원 분원은 서울대 배곧병원(시흥)을 비롯해 총 11곳으로 병상수는 6천600개

이른다. 이는 신도시 개발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으로 환자 수요가 늘 것이라는 기대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학병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난 20년간 지속돼왔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20년 동안 전국에 개설된 대학병원 총 16곳이다. 이중 절반이 넘는 9개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병원에 소속된 의사 수는 총 4천288명으

로 절반 정도인 1천959명이 수도권에 근무하고 있다.

문제는 의사들이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병원들이 지방 의료인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500-1천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에는 적게는 20명에서 50명 안팎의 의사가 근무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대학병원 1곳이 들어설 때마다 지방의사 수십명이 상이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병상 증대가 지방 의료인력 흡수로 이어져 지방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며 지방 환자들의 수도권 ‘원정 진료’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시·도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심근경색·뇌졸중·중증외상) 전원율은 전국 평균 47%인데, 전남은 9.7%로 2배 이상이다. 중증환자가 지역 내에서 해결되지 못한다는 의미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다.

김원이 의원은 “지역완결적 의료 체계를 갖추려면 의사 인력이 지역 내에서 양성되고 부속 대학병원에서 수련 후 근무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국가는 의대가 없는 지역인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하는 한편, 부속 대학병원도 신규 건립해 지방 의사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15일 오전 장성군 나노바이오연구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전남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김애리기자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해야”

시·도의회 공동 성명 “균형발전 핵심 모델” 촉구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 시·도의회 의원들은 15일 장성 소재 전남나노바이오연구센터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 지정을 요구했다.

시·도의회는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

너지 자원 보유 ▲대상 부지 확보로 신속한 정책 효과 ▲반도체 공동연구소 사업 선정 등 인재·인프라를 바탕으로 광주·전남이 차세대 첨단 전략산업의 중심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도의회는 “균형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논할 수 없다”며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도의회는 “광주·전남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350만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선 8기 상생협

력 1호 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시·도의회도 각각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통해 제도적 정비를 마쳤으며 지난 3월엔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 대통령실 등 각 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치열한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평가 결과는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이다.

광주·전남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2030년까지 첨단·3지구에 6천㎡ 규모의 반도체 산업 기반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김재석·박성강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 때 “여보야”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에서 “여보야”를 다운로드 받고
당신과 평생을 함께 할 배우자를 찾아보세요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